

2025. 3. 28.(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27일 오후 14: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정원도시국 조경과

조경과장	유혜미	02-2133-2100
조경협력팀장	김승렬	02-2133-2130
관련 누리집 (메뉴)	- https://festival.seoul.go.kr/garden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5쪽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농심과 크리스찬디올의 정원을 만난다

- 서울시, 농심·크리스찬디올과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농심, ‘자연과의 공존’을 중시하는 농심만의 색깔을 담은 정원을 조성
- 디올, 프랑스 정원의 미학과 한국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디올만의 정원 선보일 예정
- 서울시, “생활속 작은 공간도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

-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보라매공원에 민관협력을 통한 동행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3월 25일과 3월 27일에 농심, 크리스찬디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동행정원 조성에 참여하기로 한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기업(기관)으로, 이에 앞서 서울시는 동양생명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 KB증권, 깨끗한나라, 정선군, 춘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농심과 크리스찬디올 모두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에는 처음 참여하는 것으로, 이는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정원과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 농심은 그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자연과의 공존’을 중시하는 정원을 통해 그 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 자연의 원초적 요소들의 에너지가 곡식의 작은 낱알에 응축되고 이것이 인위(人爲)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식품이 되는 과정을 담은 특색있는 정원을 선보일 예정이다.
 - 보라매공원 북쪽 출입구에 사육을 두고 있는 농심은 자사의 기업동행정원이 직원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 크리스찬디올은 그간 정원에서 받은 영감을 패션과 뷰티로 승화시켜왔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브랜드다. 이번 기업동행정원을 통해 서울 시민들이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 200m 길이의 플라타너스 녹음 아래, 프랑스 정원의 우아한 감각을 살리면서도 한국의 토착 식물을 배치해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했다.
 - 행사 종료 후에도 본래의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자연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신중히 식재를 선정해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작년에 비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동행 정원을 선보이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원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시민들께서도 생활 속 작은 공간이라도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25. 3. 25.(화) 협약식

(왼쪽부터 농심 김보규 경영기획실장,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25. 3. 27.(목) 협약식

(왼쪽부터 디올 정경옥 임원,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Q1|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기업은 어떻게 선정됐는지?

- ◆ 2015년부터 개최해오던 박람회를 국제적인 규모로 추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 ESG 경영과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진 기업들이 정원 조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뜻으로 정원조성 의사를 서울시로 전달하였으며 세부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Q2| 기업동행정원 조성 추진 방법은?

- ◆ 서울시와 기업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규정된 상호 역할을 수행하여 추진합니다.
 - (서울시) 사업에 대한 기획 및 홍보 지원, 장소제공, 인수 후 유지관리 등
 - (기업) 정원의 설계 및 시공, 홍보, 재정지원 등

|Q3| 향후 유지관리는?

- ◆ 서울시와 기업간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관되며,
- ◆ 이후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를 시행합니다.